



이 자 영 | (주)EDI환경디자인 팀장  
(ijy3331@hanmail.net)

# 저수지에 더이상 개들은 없다.

## 프롤로그



〈그림 1〉 저수지의 개들

LA의 어느 창고 안. 대규모 보석 강도를 위해 서로 전혀 모르는 6명의 프로들이 한곳에 모인다. 이들을 불러 모은 장본인은 전문 절도범 조와 그의 아들 나이스 가이 에디. 각 갱들에게 각자의 임무가 주어지고 이제 작전이 시작된다.

처음 조와 에디의 거사는 성공한 듯 보이고 갱들은 그들 뒷으로 돌아올 거액을 꿈꾸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문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을 발견한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포위망을 뚫고 창고 안에 다시 모인 갱들. 사망, 실종, 치명상이 각 한명씩이다. 조와 에디는 나타나지 않고, 서로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갱들은 서로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질 뿐, 다른 것은 알 수 없다. 자신의 정체를 노출하고 서로에 대해 알면 알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데...

저수지 하면 생각나는 하나.

바로 '저수지의 개들(Reservoir Dogs, 1992)'이란 영화이다. 아마도 '저수지의 개들'이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거나 영화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직한 영화 제목이다.

이 영화는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은 천재감독 쿠엔틴 타란티노의 데뷔작으로 저수지 옆 창고 공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제목에서 연상되는 것처럼 영화 내용은 어둡고 탁하다. 불쾌하고 또 불편하다.

이 천재감독이 영화의 배경으로서 저수지를 선택한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영화는 소품 하나하나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니까. 하여튼 저수지란 곳이 우리나라나 해외에서나 그다지 매력 있거나 아름다운 장소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나 보다.

그럼 이제 소리 내어 읽어보자.

“저\_수\_지”

음침한 이름 때문일까? 저수지라는 말 자체에서 오는 어감은 그리 좋지 못하다.

저자세, 저소득, 저출산 등 부정적인 말에 앞말로 많이 붙는 '저'라는 글자가 주는 의미에 'ㅈ'을 뺄 때 나오는 특유의 저음

의 느낌이 더해져서일까, 저수지는 우리에게 그냥 산골 또는 개발에서 소외된 시골구석에 있는, 버려진 듯한 느낌의 담아 놓은 물 정도, 하여간 좋은 어감은 아닌 건 분명하다.

실로 이름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바이다.

왜, 어찌다가 저수지는 이렇게 기분 좋지 못한 편견을 갖게 되어 버린 걸까.

### 아름다운 저수지 풍경, 세상 밖으로 나온다.

주5일제의 정착과 맞물려 디지털 카메라와 블로그,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보급이 미치는 사회 전반적인 과정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구전에 의존하거나 우연에 기대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 우선 먼저,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사전에 체크한다. 몸이 묶여 갈 수 없다면 눈으로 대리만족이라도 하는 시대이다. 모두 앞서 언급한 주5일제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와 소셜 네트워크가 맞물린 덕분이다. 그리고 그 효과를 독특히 본 것 중 하나가 바로 저수지가 아닌가 한다. 우리가 몰랐던 저수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간단한 클릭 한번과 가벼운 스크롤만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면서 저수지는 감추었던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더욱 유명해진 저수지로 주산저수지(일명 주산지),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직접 가보았던 가보지 않았던,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저수지 덕에 그 지역은 청정

한 장소로 각인된다. 더불어 그곳의 물을 먹고 자란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이 되고 더욱 탐스러운 열매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설계자들이 그토록 목표로 하는 관광자원화 설계이자, 지역명소화 전략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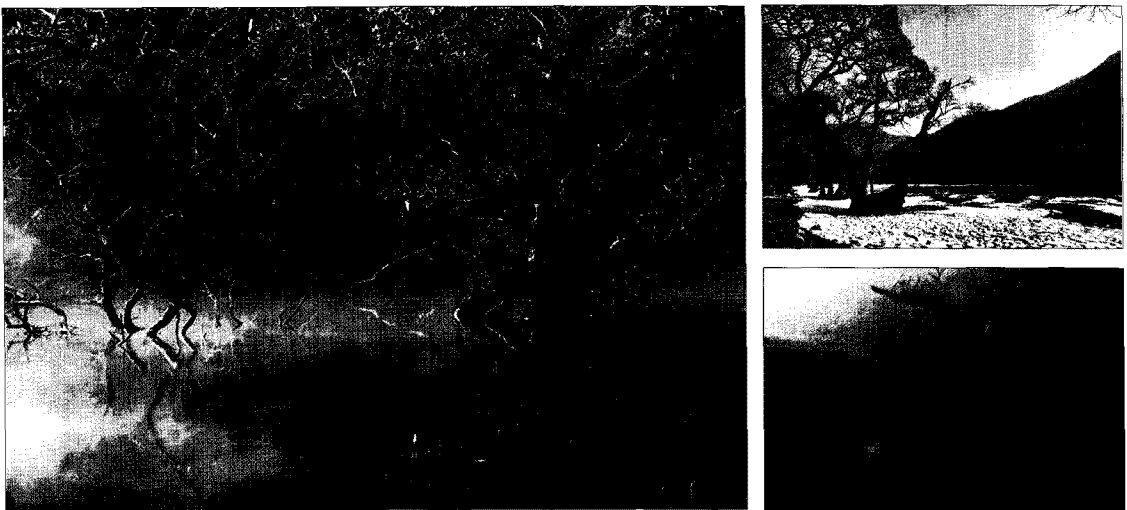
또한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는 또 다른 출사자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게 하고 그곳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거나 잠을 자게 한다. 하다못해 동네 슈퍼에서 음료수라도 한잔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대 재생산된, 같은 장소에서의 다양한 프레임들은 이곳을 더욱 유명하게 하는 선순환의 구조 그대로이다.

잠시 저수지 풍경 사진을 감상해보자. 검색창에서 저수지의 이름을 치면 다음과 같은 사진들을 갤러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물속에 잠겨 신비로운 분위기를 품어내는 나무들의 자태, 고요하면서도 성스러운 물의 풍경 그리고 새벽녘 이슬을 맞아 연무를 만들어내는 공기와 물의 합작품은 또 어떠한가. 시간에 따라, 날씨에 따라 시시때때로 다른 표정을 자아내는 저수지 경관에서는 팔색조의 기운이 느껴지기도 한다.

깊숙이 박혀있는 저수지들은 그 덕에 자기만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대표적인 곳이 우포늪. 그리고 눈에 오롯이 걸려 있는 배 한척, 그것만으로 충분한 그림이요, 시가 되는 풍경이다.

뉘시하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인 줄 알았더니만, 저수지, 그



(그림 2) 주산저수지의 신비로운 풍경 (출처:네이버 포토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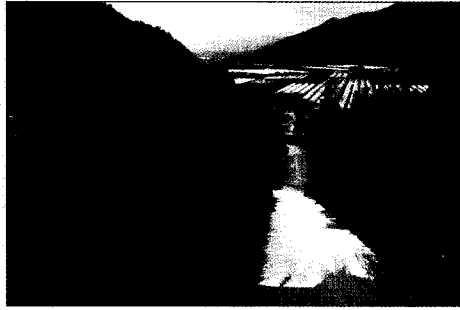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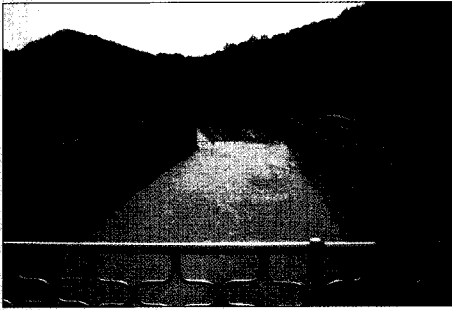
게 아니더라도. 도시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초록의 싱그러움과 시원한 물의 풍경을 간직한 보물 같은 곳이다. 여담이지만, 같은 풍경을 가지고도 다양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자연의 연출력이란 실로 신이 얼마나 천재적인 디자이너인가를 실감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저수지하면 낚시꾼들이나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뭐가 문제인가... 위에서 언급한 영화나 과거에 있었던 사건(살인, 강도사건 등) 및 이름이 가진 태생적 한계가 전부 아닐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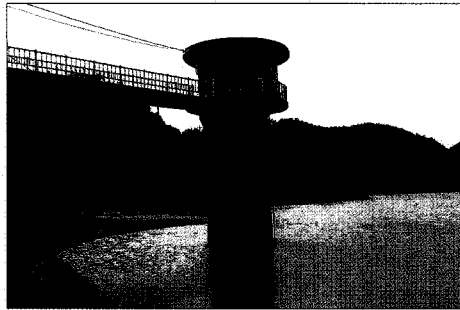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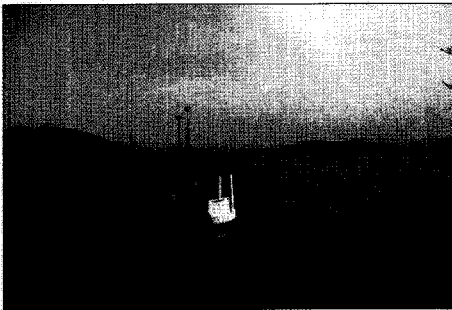
자연과 조화되지 못하고 한쪽에 서있는, 어쩔 수 없이 꼭 봐야만 하는, 볼 수밖에 없는 불편한 경관의 과편들도 한몫을 한다.

삭막하게 느껴지는 직선적인 콘크리트 수로, 못생겨도 저렇게 못생겼을까 싶은 취수탑들, 수려한 조망권을 가지면서도 어지럽게 자라난 수풀로 방치된 듯한 독방길, 부담스러운 규모와 역지로 인식하게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로고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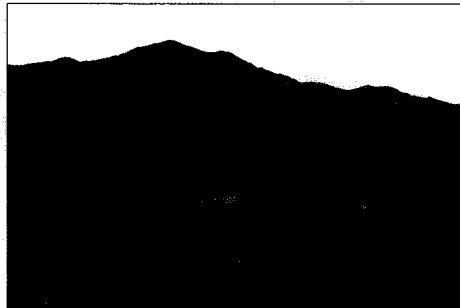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안고 저수지를 찾아오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우리는 알고 있다. 설계자의 조금만 더의 정성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이에 필자는 최근 수행한 저수지 설계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수지 개발 개념을 친환경적으로 바꾼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며 조심스럽게 소개해본다.



〈그림 3〉 인공성이 강한 콘크리트 수로



〈그림 4〉 못생기고 개성 없는 취수탑 디자인



〈그림 5〉 잡풀로 덮힌 사면과 독방길

## 친환경적 저수지 개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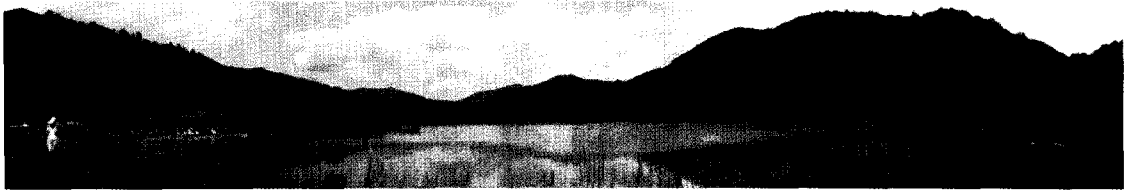
〈그림 6〉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된 저수지사업 공구현황

작년 8월경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된 저수지사업 중에 경북의 금봉2저수지, 봉학저수지, 덕곡저수지 3개를 한 개의 공구로 묶어 입찰을 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입찰된 작품 중 최종적으로 입찰에 수주한 한화건설팀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성엔지니어링과 창성엔지니어링이 주요 토

목설계를 맡았고, 여기서 주로 다루게 될 경관설계는 이디아 이환경디자인에서 진행했음을 밝혀둔다.

**사업 개요** 본 설계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찰된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 3공구 지역이다. 장소는 경상북도 성주군 봉학저수지, 고령군 덕곡저수지, 봉화군 금봉저수지로 모두 소백산맥 아래에 위치하고 낙동강으로 연결되어 청정자연환경을 보유한 저수지이다. 3개 저수지 모두 1차적으로는 농업용으로 쓰이는데 성주에서 김천을 잇는 길목에 위치한 봉학저수지의 경우 노오란 참외밭이, 문수산 암자 가는 길목의 금봉저수지는 사과밭이 인접하고 있다. 그리고 덕곡저수지의 경우 가야산 국립공원 계곡에 위치하여 상류에 상비리 계곡 유원지가 있으며 하부에는 하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두 개의 저수지와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경관 현황** 3개 저수지 모두 현재 수로와 취수탑 등이 있는데 독방길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저수지를 둘러싼 아기자기한 산세들이 심상치 않다. 산들의 스카이라인들이 차곡차곡 겹쳐지며 좁아지는 상류쪽의 경관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마냥 신비하고도 아름다우며 우리나라 특유의 녹색을 띠는 물빛과 더불어 훼손되지 않는 신선한 자연의 느낌을 더욱 강조한다. 그러나 역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콘크



〈그림 7〉 봉학저수지 - 차곡차곡 포개지는 산의 스카이라인과 흠뻑을 띠는 물색이 아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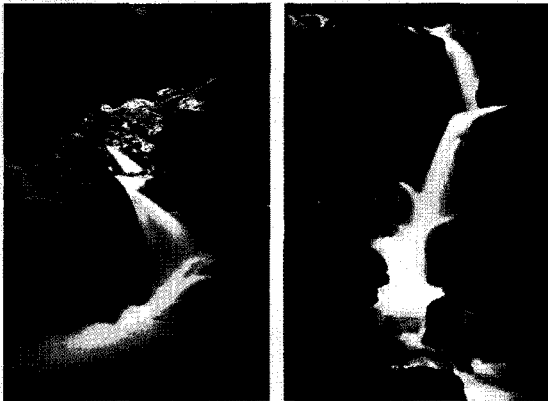
〈그림 8〉 덕곡저수지 - 저수지를 둘러싼 아기자기한 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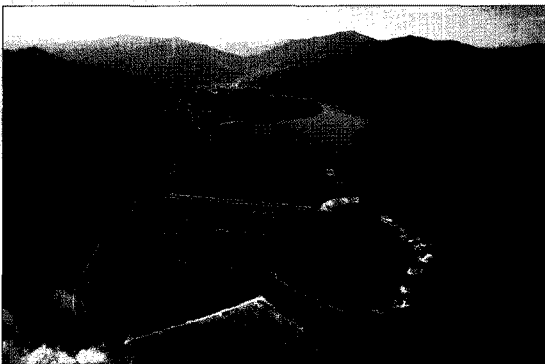
〈그림 9〉 금봉저수지 - 구름에 가려져 더욱 영험하게 느껴지는 문수산과 아생 송이가 시는 솔숲

리트 수로나 가능적으로만 무심하게 지어진 취수탑을 보면 인상이 찌푸려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지면서도 그 자체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가에 집중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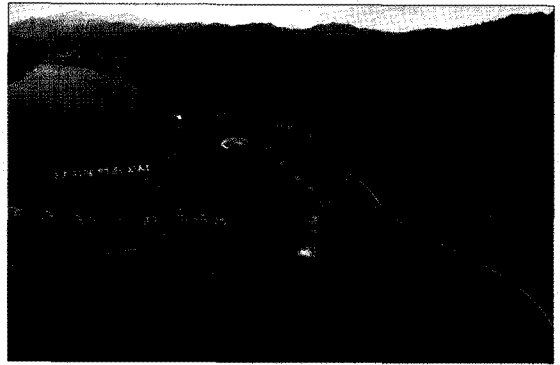
**설계 내용** 먼저 제당의 위치 선점에서부터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제당 및 도로개설 공사로 인한 절성토면 발생 최소화 및 기존 산림 훼손 최소화다. 물론 물을 가둬두는 축으로서 기술적으로도 안전해야 한다. 설계팀은 몇 개의 대안을 가지고 보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최적의 위치를 찾았다. 우리가 찾은 수로의 위치는 암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점을 적극 활용, 암석 지형을 그대로 살려 콘크리트 수로를 대지 않고 암을 깎고 돌을 놓아 마치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 자연형 계곡 폭포로서 수로의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흘러내려오는 물은 돌들을 더욱 아름답게 조각할 것이며 자연의 일부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봉학저수지, 금봉저수지가 만들어졌다.



〈그림 10〉 콘크리트 인공 수로가 아닌 자연을 닮은, 자연을 담은 계곡 폭포형의 방수로를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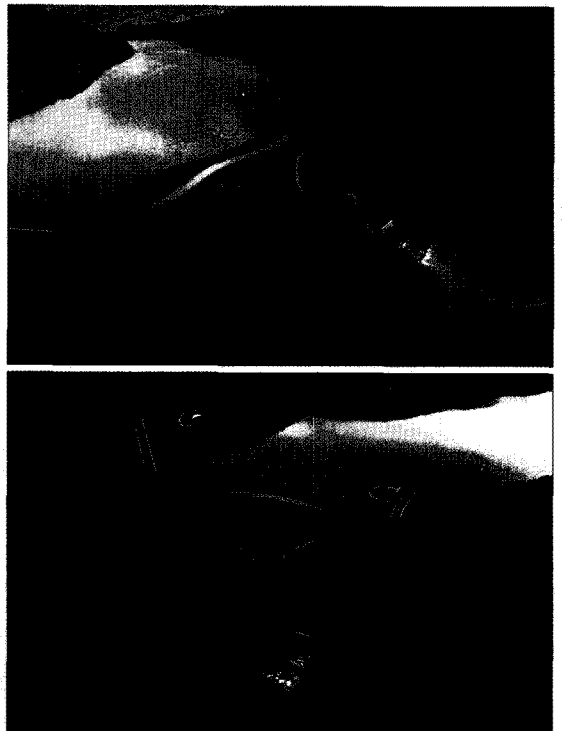


〈그림 11〉 봉학저수지 조감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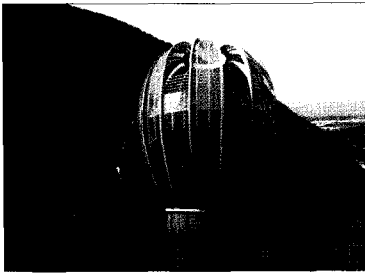
〈그림 12〉 금봉저수지

덕곡저수지는 다른 개념이다. 국내 저수지에서는 보기 드문 모닝글로리라는 방식으로 물을 빼내게 되는데 이러한 제당 축조 방식은 땅속에 물길이 만들어지므로 자연히 콘크리트 수로 같은 것은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직선형의 편편한 제당 사면이 자연적인 곳에 어울리지 않게 인위적이므로 3차원 곡면이 되도록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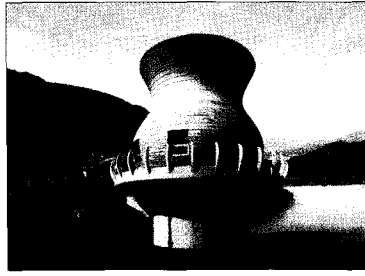


〈그림 13〉 곡선형 제당으로 만들어진 덕곡저수지, 제당 오른쪽 위에 모닝글로리와 취수탑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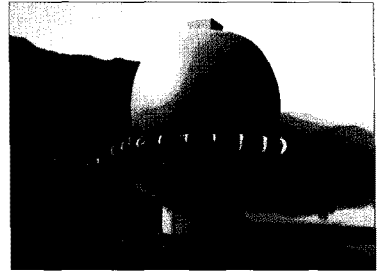
각 사면의 식생은 일방적인 녹색사면의 경우 자연과 조화되지 못하고 잡초들로 뒤덮여 경관을 해치고 식생에 있어서도 공



(그림 14) 침외 모티브 (봉학저수지)



(그림 15) 가야토기 모티브 (덕곡저수지)



(그림 16) 사과 모티브 (금봉저수지)

정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아 자생수종이면서 향도수종 야생화를 씨앗을 혼합하여 심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으며 우점종에 의한 식재군락 형성으로 잡풀이 잘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저수지 모두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디자인의 취수탑을 설계하였다. 자칫 이러한 의도가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갈 경우 오히려 어설피지면서 유치하고 저속해보일 수 있으나 잘만 하면 유머러스하면서도 지역 분위기를 잘 살리기도 한다. 봉학은 침외의 곡선을 모티브로, 덕곡은 가야토기를, 금봉은 사과 모양의 취수탑이다. 어쨌든 세상에 하나뿐인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취수탑들이고 지역의 아이콘이다.

그밖에 둑방길 상부는 잡풀로 인해 산책길이 훼손되지 않도록 흙길로 포장하였는데 구불구불한 형태로 만들어 느리게 걷는 여유를 더하였고 저수지 주변으로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물레길을 개발하였다. 덕곡의 경우 지형 특성을 이용하여 인공섬을 2개소 만들어 물위에서 호반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마지막에 디자이너의 의도와 다르게 한국농어촌공사 글씨가 새겨진 점이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때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로고는 새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외 마을의 이야기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진 다양하고 재미있는 관광자원화 설계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이야기하기로 한다.

## 맺음말

우리나라 저수지는 대개가 농업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2009년 기준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는 무려 17,611개다. 정식 등록된 것만 저려한 수치니, 비등록 저수지까지 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많은 저수지를 우리가 경관자원으로서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에는 경제 활력소가 될 것이고 도 시민에게는 또 하나의 휴양지가 될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저수지의 개발과 활용,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드는 저수지 개발공사 이전에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보는 방법이 있다. 서울의 수돗물이 아리수라는 새 이름을 얻고 이미지가 개선된 것처럼 저수지에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이다. 공모전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면 저수지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참여정책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